



법정 스님 열반 1주기 추모법회가 2월 28일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법정 스님의 상좌 7명 중 덕현 스님을 제외한 6명이 제를 올리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 못다한 이야기는 거룩한 침묵 통해 듣기를

성북동은 도심 속 오솔길이다. 대낮에도 한적한 곳이다. 2월 28일 길상사가 있는 성북동에는 평소와 달리 차량이 줄어 있었다. 법정 스님을 추모하려는 이들의 발걸음 끊이지 않았다. 도량은 새벽까지 내린 비로 촉촉했다. 1년 전 법정 스님이 열반한 날과 흡사했다. 추모법회에 앞서 스님을 추모하는 신도들의 기도소리가 극락전을 울렸다.

추모법회에는 법정 스님과 인연이 닿은 이들로 가득했다. 순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송광사 원로 의원 범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광주 원각사 주지 현고 스님, 군중교구장 자광 스님, 보성 대원사 현장 스님, 송광사 문도 스님, 진명 스님, 길상사 자문위원, 길상사 신행단체, 맑고향기롭게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2년 여간 길상사를 지켜오다 20일 주지직에서 물러난 법정 스님의 넷째 상좌 덕현 스님은 안타깝게도 자리하지 않았다.

취재진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극락전에서 봉행할 예정이었던 추모법회는 설법전으로 자리를 옮겨 봉행됐다. 설법전에는 '묵인'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설법전에도 일찍부터 신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리를 좁히고 또 좁혀 앉아 추모법회를 지켜봤다.

추모법회는 간소하고 정갈하게 진행됐다. 영단에는 이날 처음 공개된 법정 스님 진영과 흰색 장미 14송이, 두 자루의 초와 향대가 다였다. 수북한 제사 음식 대신 국수 한 그릇이 올려졌다. 스님의 뜻을 이어가려는 상좌들의 뜻이었다.

법회는 명종 5타로 시작했다.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종사영반, 영단 삼배, 추모영상 상영, 추모법문, 헌음, 길상사 신임주지 덕운 스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종사영반에는 송광사 원로의원 범흥 스님의 헌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중앙종회의원 보선 스님·포교원장 혜종 스님의 헌다, 송광사 주지·유나 현목 스님 등 송광사 스님과 사부대중의 헌화가 이어졌다. 상좌인 덕조·덕인·덕문·덕운·덕진·덕일 스님은 법정 스님이 평소 좋아하던 국수를 헌공하며 은사를 기렸다.

법정 스님 추모영상도 방영됐다. 스님의 목소리

와 모습, 유품이 영상을 통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사무친 그리움이였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한 평생 무소유를 수용하고 붓과 혀바닥으로 간담을 드러내서 중생을 제도하더니, 인연이 다해 조계사에서 낙조를 보이노다"고 추모법문을 했다. 이어 보성 스님은 "법정 스님이 효봉 스님을 시봉한지 1년 쯤 됐을 때였다. 평소 은사 스님의 공양이 변변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

## 평소 좋아하던 국수 한 그릇 헌공하며 소박한 추모식 길상사 새 주지 덕운 스님... 은사 스님 뜻 이어 갈 것

하루는 20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신도에게 고추장을 얻어오다 공양시간에 늦어졌다. 이에 효봉 스님은 법정 스님에게 "오늘은 그만 나와 내가 점심 먹지 말자. 오후 불식을 하자"고 했다"면서 "출가자는 그래야 돼!"라며 물욕에 느슨해진 승가의 기강에 무소유와 지계의 일갈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의 삶은 언제나 사부대중의 사표였다. 출가자에게는 수행자의 본분사가 어떠한지, 재가자에게는 청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며 "〈무소유〉는 우리 시대 최고의 포교사이며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는 가르침에 따라 스님의 큰 덕화를 되새기며 이 땅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세상과 대중을 일깨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인사 백련암 원택 스님은 이날 봉안된 김범수 원광대 교수가 제작한 법정 스님의 진영에 대해 진영찬을 읊었다. 한양대 음대 박경옥 교수는 '성

불사의 밤' 첼로 연주를, 길상사 합창단은 법정 스님이 평소 좋아하던 '청산은 나를 보고'를 헌음했다.

길상사 신임주지로 내정된 덕운 스님이 문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자 신도들 중에는 스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자리를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다.

덕운 스님은 "길상사 차기 소임자로서 무소유 사상으로 큰 매아리를 남기고 떠나신 은사스님 열반 1주기를 앞두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

## 혜종 스님의 '법정 스님을 추억하며'



법정 스님 기일 하루 전인 2월 27일, 비 내리는 길상사는 어느 때 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주지 덕현 스님이 2월 20일 갑작스럽게 물러났지만 신도들은 큰 동요가 없어보였다. 길상사는 '법정 스님을 추억하며'를 주제로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의 일요특법법문을 진행했다.

혜종 스님은 1950년대말 ~ 1960년대초 합천 해인사에서 법정 스님과 함께한 추억을 소개했다. 법정 스님이 평소 책과 음악을 즐겨한 이야기, 정랑(해우소) 주변 퇴비에 코스모스 씨를 뿌려 꽃을 피운 이야기를 비롯해 어린 혜종 스님에게 쪽지에 적어준 〈잡보장경〉 일부분을 소개했다.

"우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범어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잘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모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혜종 스님은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나(我), 생노병사, 탐진치를 근본소유 하게 된다"며 "진정한 무소유는 생노병사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법정 스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열반 1주기에 처음 공개된 법정 스님 진영.



법정 스님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곳 길상사 행차실을 넘어 한 쌍이 들어다 보고 있다.

梵鐘名家 聖鐘社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이!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들려야 한 번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전체주 부러면 금이 아니!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워겠습니다!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은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서면 합목리 406-28 Tel:043-536-2581